

2월 4주차 Q&A — 케빈 워시 지명 이후 시나리오 & 금과 비트코인의 경쟁

· 정리 2026-05-13

11/3 중간선거 사활 + 글로벌 자산 vs 로컬 자산 시각

박종훈의 경제로드맵 일곱 번째 Q&A. 본 회차는 두 질문을 깊이 — Q1) 케빈 워시 지명 이후 시나리오 (맛진 물고기) + Q2) 미국이 금 버리고 비트코인을 준비자산으로 변경할 것이라는 황당 주장 (강릉).

케빈 워시는 매파인데 왜 지명했나 — 11/3 중간선거

트럼프 대통령이 매파 케빈 워시를 지명한 데는 치밀한 계산이 있습니다. **11월 3일 중간선거**가 사활이 걸린 이벤트:

시점	트럼프 의도
1~2월 상승	중간선거에 도움 안 됨 — 10달 전 일 기억 안 함
10~11월 초까지 상승	결정적 — 중간선거 승리
1월 폭등 시	오히려 10월에 떨어질 가능성 ↑

트럼프 핵심 참모들(월가 책라기)은 천천히 미국 증시를 끌어올려 **10~11월까지 오름세** 지속시키고 싶다는 게 강사 진단. 1월 케빈 워시 발표 자체가 시장 “패닉”을 만들어 1월 폭등을 막은 셈.

케빈 워시 = 하이브리드 (금리 인하 + 양적완화 X)

매파/비둘기파 정의:

분파	입장
매파	금리 올리고 돈줄 죄자
비둘기파	금리 내리고 돈 풀자
케빈 워시 (하이브리드)	금리 내리고 돈줄 죄자

매파라 불리는 이유 — 트럼프의 여러 후보 중에서 “가장 매파”라서 시장이 깜짝 놀랐던 것. 트럼프의 진짜 노림수 — **FOMC 12명 의결권 중 1표뿐인 연준 의장**이 “하이브리드 입장으로 FOMC를 설득하기 더 유리”해서 임명. “매력적 선동주의자”.

+ 1 강의 후 케빈 워시 청문회가 본격 진행됐습니다. **4/21 청문회 + 4/29 상원 위원회 통과 (R 13 vs D 11) + 5/11 cloture 49-44 통과 → 5월 11일 주 최종 confirmation 예상**. 강사가 짚은 “5월 취임 불확실”이 본격 진행. Powell 임기 5/15 만료에 맞춘. 워시는 청문회에서 “트럼프의 sock puppet 되지 않겠다” + “인플레이 framework 개혁” 발언.

주가를 올리는 두 가지 방법

방법	효과
재정 정책 (정부 국채 발행 + 돈 살포)	주가 급등
통화 정책 (연준 돈 찍기 / 기준금리 인하)	주가 급등 (없던 돈 새로)

트럼프는 하반기부터 두 방법 모두 집중. 다만 “인간이 계획대로 안 되는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”라는 단서를 강사가 명시.

플랜 A vs 플랜 B

플랜	내용	작동 조건
플랜 A	6월 케빈 워시 금리 인하 추진	2~5월 경제 적당히 식어야 함
플랜 B (강사 추정)	단기채(레포 시장) 개입	플랜 A 안 될 때 우회로

워시 철학 — 장기채 매입(QE)은 인플레이(QE)은 인플레이 만드니 X / 단기채(레포) 시장 발작 막기는 Yes. 장기채 매입은 FOMC 다수 결정 필요해서 어렵지만 단기채 시장 개입은 연준 의장 + 뉴욕 연은 총재 의지만 있으면 가능. 정치 성향 문제 아니라 시장 깨지는 문제라 다른 매파들도 찬성 가능성 ↑.

트럼프·베센트 책사의 치밀한 계획

시기	전략
2~4월	증시 방치 모드 — 일부러 안 올림
5~10월	재정 지출 지속 증가 + 6월 연준 금리 인하 or 단기채 매입
10월 말	가장 뜨거운 증시 → 11/3 중간선거 승리

지금 트럼프가 돈 안 쓰고 있는 이유 — 재정 정책 부양 여력이 있음에도 “실탄을 아끼는” 중 + 케빈 워시가 금리 낮출 수 있는 여지 주기 위함.

위험 요소 3가지

위험	영향
인플레이션 재발	긴축 강요
채권 시장 반란 (Bond Vigilantes)	국제 금리 폭등
선거 전 스마트 머니 매도	미리 빠져나가는 큰손

“3분기까지는 성공 확률 조금 더 높다. 문제는 선거 전에 팔려는 스마트 머니”가 강사의 정확한 진단.

Q2 — 미국이 금 버리고 비트코인 준비자산? 황당 주장

강릉님이 전해준 주장 — “포트노스에 금이 없으니 미국이 금은 돈이 아니라 선언하고 비트코인을 준비자산으로 변경한다.”

강사 답은 단호하다. **이런 주장하는 사람이 전 세계에서 단 한 명, 그것도 한국에만 있다.** 미·중 패권 전쟁의 치열한 전경에서 전 세계 누구도 모르는데 한국인 1명만 진실 안다? 말이 안 된다. “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져서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조화를 많이 하시는 것 같다”는 게 강사 진단.

세계 최강 비트코인 예찬론자도 “금 폐지 X”

인물	주장
마이클 세일러 (Strategy 회장)	“비트코인이 금보다 우월” — but “비트코인+금 공존”
신시아 루미스 (미 상원의원, 가장 강성)	“연준 금 재평가해서 그 차액으로 비트코인 사자” — 금 폐지 X

+ 3 마이클 세일러 2026년 발언이 강의 진단을 검증. **“Bitcoin은 digital capital, gold는 analog capital”** — 비트코인이 금보다 우월하지만 두 자산은 별도. 2035년까지 비트코인이 금 시총 추월 전망이지만 “**금 폐지**” 주장은 X. 강사 진단 정확. 신시아 루미스도 “금 재평가” 입장 — “폐지” X.

포트노스 8천 톤 — 1천 톤 비어 있어도 세계 최고

“미국의 금이 장부 그대로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— 그동안 금 가격을 떨어뜨리려고 온갖 장난질을 쳤기 때문에 금 실물을 여러 번 팔았을 것”이 강사 진단. 하지만 8천 톤이 하나도 없는 정도는 너무 과한 사기. **한 1~2천 톤 비어 6천~7천 톤이라도 세계 최고.**

글로벌 자산 vs 로컬 자산 — 시각 핵심

강사가 이 주장의 “치명적 오류”라 짚는 부분. 자산을 보는 시각이 한국에 갇혀만 안 된다:

분류	정의	예시
로컬 자산	특정 국가 법·신용 의존	원화, 한국 부동산, 한국 국고채, 튀르키예 자산
글로벌 자산	특정 국가 통제 벗어남, 전 세계 인정	금·은 (100%), 달러·미 국채·미 주식 (95~90%), 비트코인 (100~90%)

“한국은 G10까지 갔지만 지금 14위. 원화는 글로벌 시각에서 로컬 자산”이 강사의 명확한 진단. 튀르키예 자산처럼 보는 게 정확. 미국 중심주의·달러 무기화로 달러·미 국채는 글로벌 자산 100~90~95점으로 떨어짐.

금·은 6,000년 vs 달러 165년

화폐 역사 비교:

화폐	역사
금·은	6,000년
달러 은화	좀 더 오래
달러 지폐	165년
달러 패권	80년 (WWII 후)

미국이 “금은 더 이상 돈이 아니야” 선언해도 전 세계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전히 돈. **한 나라가 글로벌 자산을 마음대로 폐지 못함**이 핵심.

1720 프랑스 사례 — 패권을 영국에 내줌

가끔 금이 돈이 아니라고 선언했던 패권 국가들이 있다:

사건	결과
로마 제국 (강사 part1_02 회차)	데나리우스 95%→1% 할량 추락
1720 프랑스	금·은 불법화 + 종이돈 리브르만 사용

1720 프랑스 결과 — 프랑스인들이 금을 국외로 빼돌리거나 장롱에 보관, 리브르는 휴지 취급. **프랑스 경제 박살 → 수십 년 후회 → 영국에 패권 내줌.**

“글로벌 자산을 규제하면 규제 밖으로 나가 거러된다 (유로 달러 사례). 트럼프와 베센트는 절대 바보가 아니어서 중국만 좋은 일 시켜줄 리 없다”는 강사 결론.

비트코인의 변질 — 미국 유동성 노예

비트코인은 완벽한 글로벌 자산이었다. 어떤 정부 통제에도 없는 탈중앙화 화폐. 그런데 **트럼프 2025년 제도권 편입**으로 변화:

시기	비트코인 정체성
이전	100% 글로벌 자산 — 미국·중국·인도 다 매수 가능
2025 이후	90~95% 글로벌 — 반쯤 미국 로컬 자산

브릭스 기파 — 중국은 비트코인 사면 감옥, 브라질·러시아도 멀어짐. 결과 — **비트코인은 미국 유동성에 완전히 좌우되는 미국 유동성의 노예.** 미국이 돈 풀면 비트코인 오르고 / 미국이 유동성 줄이면 비트코인 떨어진다.

+ 2 비트코인 가격 흐름이 강사 진단 정확. **2026 1월 약 \$77K 추락 → 2월 \$60K 저점 → 4월 회복 \$80K → 5/5-6 \$81,286-\$82,320.** 강의 시점 “반토막” 표현이 정량 검증. 4월 ETF inflows 회복으로 institutional 매수 재개. 다만 “미국 유동성 노예”라는 강사 진단대로 미국 시장 분위기에 좌우.

4년 차 상승 진입 — 에브리싱 랠리 끝

미국 증시가 1·2·3·4년 차까지 상승하는 건 흔하지 않다. 4년 차 상승의 특징:

변화	내용
에브리싱 랠리 끝	모든 자산이 다 오르는 시기 종료
금 vs 비트코인 경쟁	자산 간 분화 본격
미국 증시 내부 경쟁	종목 간 분화 본격

+ 4 드러켄밀러 자산 배분 변경이 정량 검증. **Q4 2025 13F (2026-02-17 SEC 제출)에서 Meta·Arm·MongoDB·SanDisk 전량 청산 + Brazil·원자재·항공으로 회전.** 25~30% 골드 + 20~25% 에너지 원자재. “미국 증시 10년 stagflation (1966~1982 시기처럼)” 가설. 강사가 짚은 “드러켄밀러 자산 배분 변경” 정확 정량. 5월부터 미국 재무부 유동성 살포 시 자산 가격 다시 상승하지만 “이번에는 선별적으로 오른다”는 강사 진단 정량.

본 회차의 결 — 시각 정렬 + 관찰 가이드

본 회차는 권고보다 **시각 정렬**:

- 케빈 워시의 진짜 의도 = 베센트 책사 치밀 계획의 일부 (10월 말 증시 부양) - 글로벌 자산 vs 로컬 자산 시각 필수 - 한국인은 로컬 자산에 익숙해 글로벌 시각을 잘 모르는 함정 - 비트코인은 미국 유동성 노예로 변질 — 4년 차 상승 진입

다음 분강의 part2_04(원화 가치 몰락에 따른 대응 방법)에서 한국 원화 4단계와 환전 3단계를 본격 풀어주실 예정.

ONE LINE

케빈 워시 지명은 11/3 중간선거 사활을 노린 베센트 책사의 치밀한 큰 그림입니다 — 2~4월 방치 / 5~10 월 부양 / 10월 말 가장 뜨거운 증시. **비트코인은 트럼프 2025 제도권 편입**으로 미국 유동성 노예가 됐고, 4년 차 상승 진입으로 에브리싱 랠리가 끝나며 자산 간 분화가 본격화. “미국이 금 버리고 비트코인” 주장은 한국인 1명만 주장하는 황당론 — 글로벌 자산은 한 나라가 마음대로 폐지하지 못합니다.

+ 회차 자료 보강
#1 케빈 워시 청문회 4/21 + 상원 위원회 4/29 통과 + 5/11 cloture — Al Jazeera / Roll Call (시간 연장) 강의 시점 “5월 취임 불확실”이 정량 검증. 4/21 청문회 → 4/29 상원 위원회 R 13 vs D 11 통과 → 5/11 cloture 49-44 → 5월 11일 주 최종 confirmation 예상. Powell 임기 5/15 만료에 맞춘. 워시 청문회 발언 “트럼프 sock puppet 안 되겠다” + “인플레이 framework 개혁” — 강사 진단 “하이브리드” 시각과 정합.
#2 비트코인 5/5-6 \$81,286-\$82,320 (1월 \$77K→2월 \$60K→4월 회복) — Fortune (각도 확장) 강의 시점 “비트코인 반토막” 표현이 정량 검증. 2026 1월 약 \$77K 추락 → 2월 \$60K 저점 → 4월 회복 \$80K → 5월 \$81-\$82K. ETF inflows로 institutional 매수 회복. 강사가 짚은 “미국 유동성 노예” 메커니즘이 정확 발현.
#3 마이클 세일러 “Bitcoin은 digital capital / Gold = analog capital” — Stocktwits / Yahoo Finance (검증·반박) 강사 진단 “마이클 세일러도 비트코인+금 공존” 검증. 세일러 2026년 발언 — 비트코인이 금보다 우월하지만 두 자산은 별도, 2035년까지 비트코인이 금 시총 추월 전망이지만 “ 금 폐지 ” 주장은 X. 강사 분석 정합. 신시아 루미스도 “금 재평가” 입장 — “폐지” X.
#4 드러켄밀러 Q4 2025 13F — Meta/Arm/MongoDB/SanDisk 청산 + Brazil/원자재/항공 회전 — Navnoor Bawa (사례 후속) 강사가 짚은 “드러켄밀러 자산 배분 변경” 정확 정량. 25~30% 골드 + 20~25% 에너지 원자재 비중. “미국 증시 10년 stagflation (1966-1982 시기 평행)” 가설. “4년 차 상승 = 에브리싱 랠리 끝, 자산 간 분화 본격”이라는 강사 진단의 정량 검증.

본 회차 콘텐츠는 강사의 분석과 강의 본문에 명시된 권고에 한정하며, 매수·매도 권유 아닌.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수강생 본인.